

‘빼침’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송 경 재[†]

김 윤 영

박 을 우

박 성 미

신 지 영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문화 속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빼침’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에 관해 알아보고 심리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이다. 빼침은 가까운 대인관계 내의 특정 상황에 의해 마음이 손상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 꺼려지는 마음이 표현된 행동이다. 15문항의 개방형 설문문을 통해 빼침에 대한 일상 언어를 통한 일반인들의 표상을 알아보았다. 응답을 범주화 하여 빼침의 외적 현상(유발대상, 표현 양식, 판단 단서), 심리적 현상(정서, 빼친 사람에 대한 생각), 사회적 현상(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인 및 해소 방법, 기능을 도출하였다. 빼침은 친구, 가족, 애인과 같은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음, 비꼬거나 툴툴거림, 시무룩하거나 냉담한 표정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빼침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표정 말투, 행동 및 태도, 말 안함 등으로 빼침을 알아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빼쳤을 때 정서가 서운하고 섭섭하다, 화난다, 불쾌하다, 속상하다고 하였고, 빼친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유가 궁금하다, 풀어야겠다, 소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빼침이 관계에 주는 영향은 관계악화, 상호 이해의 계기, 상황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 질 수도 악화될 수도 있음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빼침은 발생하는 상황으로 기대 좌절, 무시당함, 힘겨루기, 소외당함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빼침의 해소 방법은 내 마음 알아주기, 사과 및 잘못 인정, 직접적 행동 개선, 내버려두기, 물질적 보상 등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빼침이 관심유도, 심정 공감받기, 간접 및 직접적 심정 표출, 관계개선 등의 기능을 하지만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이미지 손상 또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빼침이 관계 중심적 고 맥락 사회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문화 심리 기제임을 조명했다. 또한, 빼침은 한국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주며, 관계의 손상을 방지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빼침, 토착심리학, 관계중심주의, 심정, 일상 언어

* 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에서 구두 발표되었으며, 고려대학교 2단계 BK21 사업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교신저자 : 송경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064, E-mail : ktrmapsy@hanmail.net

현대 사회의 단절과 소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있다. 산업화, 경제적 치열함,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 가족 시스템의 변화, 교육 방식의 변화 등 현재 한국인의 각박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대인의 마음속의 일상적 상처와 공허함이 만연해지면서 ‘심리’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점차 친숙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연애심리’, ‘투자심리’, ‘기대심리’, ‘매수심리’, ‘시장심리’, ‘여성심리’, ‘섬세한 심리묘사’ 등 이제 ‘심리’라는 용어는 심리학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심리’라는 용어는 대부분 인간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김정운, 2001). 그러나 기존 주류 심리학은 서구 중심의 일반화를 가정한 인식론 속에 연구 되어온 탓에 오랫동안 정서 연구가 심리학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이성 중심주의의 서구 문화 전통에서, 정서는 통제되어야 할 비합리적인 어떤 것으로 치부되어왔기 때문이다(김정운, 2001).

또한, 심리학에서는 ‘심리’를 비교적 단순한 상황 속의 객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Zimbardo, G., 2008). 그러나 일상에서 ‘심리’라는 용어의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맥락적 특징을 갖는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때문에 심리학자에게 제기되는 현실적, 일상적 질문을 일반화된 심리학적 개념들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따른다(김정운, 2001). 따라서 정서를 연구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맥락이 중요시 된다.

정서는 가장 문화적인 것이다. 한국인의 대표적 정서인 정(情)과 한(恨)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문화는 핵

심적 측면이다. 최해연과 민경환(2005)은 정서를 개인 내적인 경험과 표현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Fridlund(1997; 최해연, 민경환, 2005에서 재인용)이나 Kappas, Bherer, Teriault(2000; 최해연, 민경환, 2005에서 재인용)는 정서 표현을 내적인 감정 상태보다는 사회적 동기나 의도로 완전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서표현 규칙을 습득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훈련한다. 반대로 표현된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능력과 주의도 발달한다. 이러한 정서 표현의 사회화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한다.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적응하기 위한 통제의 유형과 양이 결정 되는 것이다(Ekman, 1982, 2003; 조궁호, 김지연, 최경순, 2009에서 재인용; Gross & Levenson, 1993; Josephs, 1994.; Joseph, Williams, Irwing & Cammock, 1993). 문화 심리학자인 Markus와 Kitayama(1991)는 정서 표현은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위한 공적인 도구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즉, 정서 경험과 그 표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심리학에서 문화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틀은 집단주의, 개인주의이다. 한국이 속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중심적 인간관”,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관념으로 알려져 있다(조궁호, 2007). 관계 중심적 인간관을 가지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환경과 타인이 맺고 있는 관계가 행동의 원천이 된다. 상호의존적인 인간관을 가지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 간의 연계성 즉, 정서적 지지와 협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과 ‘우리성’은 이와 같은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적 심리이다. 이들은 한국인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며, 한국인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최상진, 1993).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조화와 화목을 도모하고 이를 깨는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역할과 의무가 중요해진다(조공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내집단 조화 추구가 사회행동의 목표로 부각되며 이는 정서에 반영된다.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는 집단에 융화되기 위해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변화 및 순응시키게 된다(최상진, 최수향, 1990). 개인적인 감정과 욕구의 추구는 사회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조화를 해치기 쉽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솔직하고 적극적인 표현은 절제한다. 가능하면 집단과 관계에 자신을 순응시키기 위한 억제와 양보를 반영한 정서 표현이 발달한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통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차재호, 1988; 조공호, 1996, 2003, 2007; 최상진, 2000a; 김의철, 박영신, 2006; 조공호, 김지연, 최경순, 2009).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서 민감한 정서인 분노는 소규모의 대인관계에서 더 통제된다(Babad & Wabbot, 1986; 조은경, 1995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사소통에 들어있는 배려는 한국사회에서 신뢰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반면, 배려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이유가 되기까지 한다(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반면, 개별적인 개체로서의 인간관을 가지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과의 독립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독립적 개인주의 하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욕구 및 성향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가 부각되며 개인의 감정과 욕구의 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표현과 자기 고양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차재호, 1988; 조공호, 1996, 2003, 2007; 최상진, 2000a; 조공호, 김지연, 최경순, 2009).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미숙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인 감정표현이나 의사 전달을 부덕시하거나(이부영, 1981) 불편해한다. 따라서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본심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우회적인 방식이 의사소통의 특징이 된다(오세철, 1982; 이규태, 2002).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와 같은 심리적 기제가 발달했다. 간접적 의사소통에 들어있는 속마음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와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상진, 1993).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집단성과 문화적 정서 및 표현양식이 창출되는데 ‘빼침’은 그러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왜 빼침인가?

한국인의 ‘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비롯되는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사람들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그 속에서의 집단 내 조화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추구하

는 것을 덕목으로 간주한다(조궁호, 김지연, 최경순, 2009). 그러다보니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개인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는 사회관계 내의 질서를 위협하고 조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간주되기 쉽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기를 억제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타협할 것을 강조한다(조궁호, 김지연, 최경순, 2009). 한국인의 대인관계 기술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심정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 적극적이다. 또한, 극명한 표현양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기저에 깔린 정서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빼침’은 바로 한국인의 이러한 정서표현 양식 중 하나이다.

‘빼침’의 동사형인 ‘빼치다’의 사전적 정의는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국립국어원, n.d.)이다. 이러한 ‘빼침’은, 가까운 대인관계 내 특정 상황에 의해 마음이 손상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 꺼려지는 마음의 상태이다. 즉, 마음을 주고받고 상대 심정을 읽고 내 심정을 내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심정적 손상이 발생한 것이 바로 ‘빼침’이다. ‘빼침’은 한국인의 집단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 특성과 한국 특유의 우회적인 감정 표현 양식이 합쳐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인 심리에 대한 연구는 체면, 눈치 등 상대의 마음을 읽는 쪽이었다면 본 연구의 주제인 ‘빼침’은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빼침’은 한국인의 대인관계 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며, 우리의 삶은 ‘빼침’과 빼침해결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의 보편적

심리현상 중 하나인 ‘빼침’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빼침’에 대한 ‘문화 낯설게 보기’가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나 심정심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대인관계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이제는 ‘빼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화’와 ‘빼침’의 비교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빼침’과 ‘화’는 어느 정도 유사하며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이고 분명한 자기 표출 여부나 부정적 감정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먼저 ‘화’와 ‘빼침’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두 개념 모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생기는 심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섭섭함, 답답함, 억울함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상진(2000a)은 한국어의 ‘화’와 영어의 ‘anger’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화’는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느껴지는 것(other blame and self blame)이며, ‘anger’는 대상지향적인 개념으로 순수 타인에 대한 비난의 느낌(other blam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빼침’은 ‘anger’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빠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빼침’은 ‘화’보다 덜 심각한 억울함, 섭섭함, 성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증상이 ‘화’에 비해 오래가지는 않는다. 이는 ‘빼침’이 ‘화’보다 더 쉽게 해

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빼침'이 '화'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현양식에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화'는 매우 격렬한 심적 변화를 겪기도 하며, 중대한 화는 쉽게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풀리지도 않는다. 감정의 흥분 폭이 매우 크며, 더 나아가서는 쇠진(exhaustion)을 경험하기도 한다(최상진, 1993).

'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부정적 에너지 강도가 매우 커서, 그것을 밖으로 분출하여 삭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기 때문에 '화'가 난 순간에는 주변의 관계나 자신의 감정 표출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선 고려해 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빼침'은 발현 상황 및 표현 양식에 있어 '화'에 비해 매우 일상적이며 그 강도가 경미하다. 자신 내부의 부정적 에너지의 강도가 '화'의 그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감정 표출에 따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빼침'은 상대방에 대해 내가 가진 감정의 응어리를 표현하기는 하되, '화'와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 관계 악화를 야기할지도 모르는 상대방의 직면(confrontation)은 피하되, 나의 감정 상태는 알리고 그 감정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한국인 특유의 의사소통 양식이 바로 '빼침'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빼침'의 주기는 매우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구해야 할까? 분명한 사실(fact)과 기계적 법칙(principle)이 중요한 자연과학적인 방법론 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더 적합할 것이다(최상진, 2000b). Wittgenstein(2006)은 언어의 사용맥락은 그 의미를 좌우한다고 했다. 즉, 언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서 무엇을 표상하고 함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최상진(2000a)에 의하면 한국인은 심정이 발달했다. 심정은 심정을 촉발시키는 심정 사건(event)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구체적 맥락이 담긴 일상의 언어(ordinary language; vernacular)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언어라 함은 반드시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 언어를 통한 심리학 연구는 사회구성원들과 공유한, 직접 체험한, 주관적 삶 경험을 연구하여 인간을 역사적·사회적 현실성에서 추론해야 한다는 딜타이의 입장과 상통한다(Dilthey, 1962). 따라서, 한국인의 토착 심리에 대한 탐색과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배척해야 할 한국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식되어온 '체면'의 사회적 기능을 토착심리 연구를 통해 조명하였다. 이와 같이 토착적인 의미를 담은 심리적 개념에 대한 가치와 기능을 재발견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토착 문화적 심리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문화가 녹아있는 한국인의 심리, 그 원형과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빼침',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문화적 속성을 가지는 '빼침'을 어떻게 연

서양과 같이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이 지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취향, 욕구, 권리가 행동의 동인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요구한다(Triandis, 1989; Triandis, 1995). 따라서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상대가 먼저 알아주기 원하는 ‘빼침’과 같은 정서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빼침’이란,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식 중 하나가 아닌 병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일지도 모른다. 이와 반대로, 관계 중심적 인간관이 지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나 자신의 부재와도 같다.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를 찾아 간다. 특히나 한국 문화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행동은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최상진, 김기범, 1999). 이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볼 때 ‘빼침’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빼침’이 한국인의 친밀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를 알아채고 해석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식이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빼침’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빼침’에 대한 일반인들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빼침’의 발생 상황, ‘빼침’의 표현 양식, ‘빼침’의 대상, ‘빼침’의 해소방법, 대인관계에서 ‘빼침’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 대상

서울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120 명(남자 43명, 여자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하

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 중 남자들의 평균 연령은 25.6세, 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6.8세였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26.4세였다.

조사 도구 및 절차

최상진, 손영미, 박정열, 이경언(2000)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빼침에 대한 일반인들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1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개방형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자기보고식 개방형 설문은 개인의 경험이나 정서를 추출해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빼침을 경험하며 빼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선택하였다.

자기보고식 개방형 설문

설문에 앞서 빼침에 대한 두 학자의 독립적인 짧은 글 두 개가 제시되었다. 이 두 학자의 글은 각각 빼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으로, 설문 전에 참가자들이 빼침에 대한 생각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을 읽고 난 후 제시된 개방형 설문은 15개를 사용해 빼침에 관한 다양한 사항에 대한 개인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언제 빠치는지, 왜 빠치는지, 빠칠 당시의 정서는 어떠하며 주로 누구에게 빠치는지와 빠친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그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 기술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대가 빠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와 빠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 또한,

빼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빼친 것을 상대가 어떻게 풀어주길 바라는지와 빼치는 것이 상대와 개인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답하게 하였다.

분석

박사 수료생 등 대학원생 5인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문자 코딩한 후, 토의를 통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해체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내용을 그 의미와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하고 내용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의 문항들에 대한 개별 문항 분석과 더불어 문항 간 비교를 통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분석의 전 과정은 연구자들 5명의 토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심리학 교수 2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범주화된 내용을 토대로 빼침 유발 상황 맥락, 빼침의 기능과 역기능, 선호되는 해소방법 등을 도출해 내었다.

결 과

본 연구는 빼침에 관련된 개방형 설문(open-ended question) 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출하였다.

빼침의 외적 현상

유발대상, 표현양식 그리고 판단단서를 통

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빼침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관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빼침' 사건에서 빼침을 유발하는 대상과 빼친 사람이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빼친 사람의 모습을 통해 빼침 유발자가 어떻게 상대의 빼침을 알아내는지에 대한 판단단서를 알아봄으로써 빼침의 외적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빼침 유발 대상은 친구(29.7%), 배우자 포함 가족(28.4%), 애인(27.7%), 직장을 포함한 같은 집단 내 동료(11%) 순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설문(open question)의 형식상 빼침 유발 항목은 중복 응답이 많았다. 이 응답 모두 분석에 포함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별적 응답으로 분류하여 유목화 하였다. 총 응답(155개) 중 3.2%(5개)는 애매한 응답으로,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친밀도 측정은 1점부터 10점 까지 점수를 역 채점하여 수의 크기가 친밀감 정도를 나타내도록 분석하였다. 결과는 평균 8.58로,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는 가까운 관계 내에서 빼침 유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빼친 사람이 자신의 빼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본 결과, 빼친 사람이 자신이 빼친 것을 드러내지 않는 '말 안함'이 56개(47.1%)로 가장 많았다. 빼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비꼬기, 툴툴거림'은 23개(19.3%)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시무룩, 냉담한 표정'으로 표현한다는 답변이 22개(18.5%), 빼친 사람이 자신의 심정을 언어로 드러내는 '나 빼쳤다 말함'이 16개(13.4%) 순으로 나타났다.

빼침 유발자가 상대의 빼침을 판단하는 단서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표정, 말투'(51.3%)였다. 다음은 눈에 띄게 변화된 '행동,

표 1. 빠침의 외적 현상

유발대상	응답 수(%)	표현양식	응답 수(%)	판단단서	응답 수(%)
친구	46(29.7)	말 안함	56(47.1)	표정, 말투	61(51.3)
배우자 포함 가족	44(28.4)	비꼬기, 툭툭거림	23(19.3)	행동, 태도	21(17.6)
애인	43(27.7)	시무룩, 냉담한 표정	22(18.5)	말 안함	20(16.8)
동료	17(11.0)	나 빠쳤다 말함	16(13.4)	분위기, 눈치, 느낌	16(13.4)
기타	5(3.2)	무응답	2(1.7)	무응답	1(0.8)
합계	155(100)	합계	119(100)	합계	119(100)

태도’(17.6%)였으며, 말수가 적어지고 부쩍 대
답을 회피하는 ‘말 안함’(16.8%)과 ‘분위기, 눈
치, 느낌’(13.4%)으로 상대의 빠침을 알아낸다
고 응답했다.

빠침의 심리·사회적 현상

다음으로 빠침으로 촉발된 내부적 심리과정
을 현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빠친 사람

의 당시 심정, 빠친 사람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 빠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빠친 사람
과 빠침 유발자와의 관계 내의 변화를 통해
빠침의 심리적 현상을 알아보았다.

빠친 당시의 정서로는, ‘서운섭섭’(26.9%)하
다, ‘화’(18.5%)난다, ‘불쾌’(13.4%)하다, ‘속상
함’(12.7%) 순으로 나왔으며, 기타(11.8%)와 무
응답(0.8%)외에 ‘소외’와 ‘무시당한 느낌’이 든
다는 응답이 각각 9.2%, 6.7%로 나왔다.

표 2. 빠침의 심리·사회적 현상

정서	응답 수(%)	빠친 사람에 대한 생각	응답 수(%)	관계 영향	응답 수(%)
서운섭섭	32(26.9)	이유 궁금	나 13(10.9) 너 38(31.9)	관계악화	32(26.9)
화	22(18.5)	풀어줘야겠다	15(12.6)	상호이해	28(23.5)
불쾌	16(13.4)	소심하다	14(11.8)	상황에 따라 다름	24(20.2)
속상함	15(12.6)	불편, 짜증, 당황	9(7.6)	관계돈독	14(11.8)
기타	14(11.8)	답답하다	9(7.6)	영향 없음	8(6.7)
소외	11(9.2)	미안하다	9(7.6)	관계 재확인	6(5.0)
무시당한 느낌	8(6.7)	대화 원한다	8(6.7)	서로 조심	6(5.0)
무응답	1(0.8)	미성숙하다	4(3.4)	무응답	1(0.8))
		이해심 없다	3(2.5)		
		기타	3(2.5)		
합계	119(100)	합계	119(100)	합계	119(100)

한국의 토착적 개념인 '빼침'이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빼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빼친 사람이 빼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의견이 총 30.1%로,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이 25.2%, 빼친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이 5.9%였다. 외에도 '풀어줘야겠다'(12.6%), '소심하다'(11.8%)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2,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답답하다'(7.6%)와 '불편, 짜증, 당황'(7.6%), '미안하다'(7.6%), '대화 원한다'(6.7%), '미성숙하다'(3.4%), '이해심 없다'(2.5%)는 응답도 있었다.

빼침이 발생한 이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관계 악화'(26.7%)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뒤 이어, '관계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과 상반된 '상호 이해'(23.5%)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 번째로, 이 두 답변을 포괄하는, 상황에 따라 '관계 악화'와 '관계 돈독'할 수 있다(20.0%)는 답변이 나왔다. 다음으로, 빼침 후에 별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수가 6.7%, 빼침 전보다 '관계 돈독'(11.8%)할 것이다, '영향 없다'(5%), '관계 재확인'(5%), '서로 조심하게 된다'(5%)

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빼침' 발생원인 및 해소방법

빼침이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 빼침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함으로 발현되는 '기대좌절' 유형(35.3%)이다. 이는 빼친 사람의 입장에서 암묵적으로 합의한 관계의 기대 수준에 상대가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기대 수준의 조정을 원하며 발현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입장 및 감정 등에 대해 배려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무시당함'(32.8%)이다.

세 번째는 동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현되는 '힘겨루기' 유형(18.5%)이다. 이는 부부나 연인 관계 내의 수평적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현되는 빼침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속에서 자신만 배제됨을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소외당함' 유형(12.8%)이다.

아울러, 빼친 사람이 빼침을 유발한 상대에

표 3. '빼침' 발생원인 및 해소방법

상황	응답 수(%)	해소방법	응답 수(%)
기대좌절	42(35.3)	내 마음 알아주기	66(55.5)
무시당함	39(32.8)	사과 및 잘못인정	27(22.7)
힘겨루기	22(18.5)	행동적 개선	15(12.6)
소외당함	15(12.6)	물질적 보상	5(4.2)
무응답	1(0.8)	내버려두기	5(4.2)
		기타	1(0.8)
합계	119(100)	합계	11(100)

게 바라는 ‘빼침 해소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빠친 이유 및 마음에 대해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바라는 ‘내 마음 알리기’(55.5%), ‘사과 및 잘못 인정’(22.7%), 빠치게 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직접적 행동 개선’(12.6%),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내버려두기’(4.2%), ‘물질적 보상’(4.2%) 순으로 나타났다.

‘빼침’의 기능

‘빼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물어봄으로써, ‘빼침’의 기능과 역기능을 도출하였다. 빼침의 기능은 빠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보상을 말하며, 빼침의 역기능은 빠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손실을 뜻한다.

빼침의 기능으로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관심유도’(26.1%), 빠친 마음 상태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를 받거나 사과 및 보상도 얻을 수 있는 ‘심정 공감받기’(25.2%), 빠친 마음 상태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간접적 심정 표출’(11.8%), 빼침과 해결과정을 통해 빠치기 전보다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관계개선’(6.7%), 마지막으로, 빠친 마음 상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직접적 심정 표출’(8.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빼침의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21.8%)는 응답도 나왔다.

빼침으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빼침으로 인해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37.8%),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33.6%), 심하게는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24.4%)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몇 년간 심리학 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 속에는 기존 서양 중심의 주류심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 심리학의 한계로 지적된 실험실 내에서 시행되는 진공상태의 사회 심리 연구가 아닌 실생활 속 살아있는 심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최상진 & 한규석, 1998). 더 이상 서양심리학에서 연구된 개념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의

표 4. ‘빼침’의 기능

기능적 측면	응답 수(%)	역기능적 측면	응답 수(%)
상대 관심유도	31(26.1)	심리적 에너지 소모	45(37.8)
심정공감받기	30(25.2)	이미지 손상	40(33.6)
간접적 심정표출	14(11.8)	관계약화	29(24.4)
직접적 심정표출	10(8.4)	기타	2(1.7)
관계개선	8(6.7)	없음	2(1.7)
없다	26(21.8)	무응답	1(0.8)
합계	119(100)	합계	119(100)

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도 우려와 부정적 여론 역시 존재하고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 심리학에 대한 필요성이다.

특히 마음과 심정이라는 한국적 심리개념은 고 맥락주의 사회 속 한국인의 심층심리로, 서구 문화권 사람들의 그것과 구분된다(최상진, 2000b). 고 맥락주의 사회에서 발달한 눈치, 의례성, 우리성 등과 같은 한국적 사회심리는 전통적 생활양식 속에서 발현된 것으로 현대의 삶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다(최상진, 2000b). 우리는 그 양식을 공유하며 구성된 간심리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정적 손상의 표현인 '빼침'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구성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빼침'의 외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발대상, 표현양식, 판단단서를 알아보았다. 자신을 주로 빼치게 만드는 사람 즉, 유발대상으로 친구, 배우자/가족, 애인, 동료 순으로 나타났다. 그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중 평균 8.5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상진 등(2000)의 결과에서 빼침 유발 대상으로 '친구'가 약 66%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복수응답이 가능케 하여 친구, 가족, 애인이 골고루 분포되어 나왔다. 그러므로 빼침 대상이 친밀한 관계 내에 있는 대상이라는 점은 최상진 등(2000)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고 '빼침'은 가까운 관계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빼침의 표현양식은 '말 안함', '비꼬기/툭툭거림', '시무룩, 냉담한 표정', '빼쳤다고 말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말을 안 한다거나 툭

툭거리고 냉담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나 지금 빼쳤다'라는 의사 표현을 대신한 간접적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한 것이다. 표현양식의 약 85%가 간접적 표현이라는 점은, 자신이 빼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꺼려하고, 직접적으로 빼쳤다는 것을 알리기에는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나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너 빼쳤니?'라고 상대가 물어왔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13.4%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빼침'의 정서가 표현하기 꺼려지는 것이라면 표현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감추면 된다. 그러나 표정이나 행동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자신의 '빼침' 상태를 표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빼침'은 사소하지만, 완벽하게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정서 상태를 뜻한다.

상대가 빼쳐있을 때, 그 빼친 상태를 알아챌 수 있는 판단 단서로는 '표정과 말투', '행동과 태도', '말 안함', '분위기, 눈치, 느낌' 등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단서들도 간접적 의사표현의 도구들이다. '빼침'의 간접적 표현 단서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눈치'이다. 눈치를 통해서 상대의 표정, 행동, 분위기, 느낌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눈치는 한국과 같은 고 맥락 사회에서 발달한 사회 심리 기제이다. 눈치를 통해 상대의 빼침 상태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문화적 행동이 '빼침', '눈치' 등과 같은 문화적 심리기제를 더욱 기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빼침'의 심리 사회적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빼침 당시의 정서로는 '서운, 섭섭하다', '화가 난다', '불쾌하다', '속

상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빠침은 친밀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심정 손상이므로 결코 그 정서가 긍정적일 수 없다. 나와 친밀한 관계의 상대가 나의 심정에 손상을 준 상황에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며 속상하고 화나는 것이다. 친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 나의 심정에 손상을 입히면, 단순히 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노와 적대감이 발생할 것이다.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 나의 심정에 손상을 입히면, 분노와 적대감이 아닌 상대에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으로 인한 빠침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는 관계의 친밀도와 빠침 간에 상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빠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유가 궁금하다'가 약 4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약 13%였다. 나머지는 '소심하다', '불편하고 짜증난다', '답답하고 미성숙해보이며, 이해심이 없다' 등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빠친 사람을 보면 다른 여러 불쾌한 생각이 있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빠졌을까? 풀어줘야겠구나'라는 것이다.

최상진(2000a)은 한국인의 우리성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마음'을 들고, '아껴주는 마음', '관심 쏟기', '어려움의 이해', '상대마음에 대한 공감'이 우리성을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한쪽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 심정에 손상을 주었을 때, 그 손상 받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한 마음을 알아주려 애쓰는 과정이 '마음주고받기'라는 것이다. 즉 '빠침'은 '마음주고받기'의 전형적인 도구가 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친밀 관계에서 빠침이 발생하고 난 뒤,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아본 결과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27%는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호이해', '관계돈독', '관계 재확인', '서로 조심' 등 관계가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응답이 약 45%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는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을 내포하고 있다.

빠침은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심정 손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서가 서운하고 불쾌한 부정적 감정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빠친 사람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상대가 빠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주고받기'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빠친다는 것이 미숙한 방식으로 관계 속 갈등을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빠치고 푸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추후 '빠침'의 기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지금까지 '빠침'의 외적 현상 및 심리 사회적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빠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빠침'의 발생 상황 맥락은 그 정황이 법칙적이지 못하며,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 특수적이다. 빠친 사람은 빠침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 맥락에서, 만약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빠졌을 일도, 바로 그 상대이기 때문에 빠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똑 같은 상황맥락에서 상대가 남편이 아니라 친정오빠였으면 전혀 빠치지 않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관계의 상대이기

때문에 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 맥락은 정형적이고, 대상만 불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빼침 상대가 남편이 아니라 친정 오빠가 되는 상황 맥락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오빠이기 때문에 빼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빼침의 심리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상 중심 발생 맥락과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빼치게 되는 맥락, 이 두 가지 맥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상대에 따라 빼치고, 안 빼치는 문제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빼침'이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네 가지 범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대좌절', '무시당함', '힘겨루기', '소외당함'으로 나타났다. '기대좌절 빼침'은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 기대한 것, 요구한 것이 만족스럽게 얻어지지 못함으로 발생한 빼침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기대를 한다는 것은 기대를 할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기대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기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니까', 그리고 너와 관계 맺어진 '나니까' 할 수 있는 기대이다. 이러한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우리성 정 관계로 묶인 관계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계를 깰 수도 없고 크게 화를 내자니 실질적 관계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빼치는 것이다. 기대가 좌절된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빼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시당함 빼침'은 나에 대한 상

대의 배려 없음과 무시로 인한 심정 손상으로 인해 빼치는 것이다. 이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랬다면 그냥 화내고 관계 손상을 감수하고 말겠지만, 나에게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네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빼침이다.

세 번째 빼침의 상황으로는 '힘겨루기 빼침'이 있다. 이는 부부나 연인 관계 같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의견이 대치될 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현되는 의도된 빼침이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상황에서 생겨난 빼침이다. 대화상의 작은 오해와 생각의 차이 또는 의견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관계 속에 가벼운 긴장이 발생했을 경우 '빼침'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빼침이다. 다시 말해, 상호 대치상황에서 빼침이라는 의사소통방식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심정을 더욱 강하게 피력하거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빼침이다.

마지막으로 '소외당함 빼침'은 일대 일 관계가 아닌 집단 속에서 자신만 배제됨을 지각했을 때 발생하는 빼침이다. 친밀한 집단 속에서,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자신만 소외됨을 느끼게 될 경우, '우연히 내가 배제된 거야.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제외한 것은 아니야'라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손상된 심정을 표현하는 빼침이다. 물론 합리적으로 '왜 나만 빼고 그랬어?'라고 따져 집단의 해명을 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 예상되는 갈등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빼침이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빠침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 관계 속에서 빠치는 원인을 알아보았다.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빠쳤을 때에는 그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풀어주고 달래주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의 빠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빠쳐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빠친 사람이 그것을 쉽게 드러내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더욱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빠쳤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빠친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을 원망하며 더욱 심각하게 심정이 상할 수도 있다.

빠치는 것과 빠친 마음을 풀어주는 것에도 적절한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빠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빠쳤을 때,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내 마음 알아주기(55.5%)', '사과 및 잘못인정(22.7%)', '행동적 개선(12.6%)', '물질적 보상(4.2%)', '내버려두기(4.2%)'로 나타났다.

손영미, 최상진(1999)은 심정적 대화의 의도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줘', '나 심정 상했으니깐 풀어줘'라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으며, '나 속상한데 내 말 좀 들어주라', '내 말이 맞지? 동조, 지지해줘'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함축된 심정담론은 빠친 사람의 빠친 의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나의 빠친 마음을 단지 알아달라는 것'이 빠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가장 큰 요구이다.

또한 응답자의 22.7%가 원한 해소 방법인 '사과 및 잘못인정'도 함축된 심정 대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과 및 잘못인정이 아닌 '너라면 내 마음을 읽어줘야 하는데, 왜 못 읽어 주니? 그 부분을 이해 못 한 것에 대해 사과해'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그 외의 '행동적 개선'과 '물질적 보상'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빠친 사람은 나를 빠치게 만든 사람의 정확하고 이성적인 행동개선 또는 실질적 물질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얼마나 내 마음이 많이 손상되었는지 알아 달라는 차원에서의 행동개선과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빠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배제된 행동개선과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 해소방법인 '내버려두기'는 빠친 당사자가 손상된 심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빠침이 해소되는 양상은 빠침의 강도가 약해짐을 통해 나타난다. 빠침이란 자체가 그 지속 시간이 '화'처럼 길지 않고, 그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빠침을 제공한 사람은 빠친 사람의 빠침이 해소될 때 까지 시간만 보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 잘못된 것이 없다하더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빠친 사람의 손상된 마음을 해소시키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친 사람도 상대가 단순히 문제의 원인에 대해 잘못했음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빠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감정을 매우 솔직한 자기의 표

현으로 받아들이는 진실 진정관(최상진, 1997)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혹은, 한국과 중국의 비교문화 심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심정적 자기와 심정적 관계를 우세하게 여기는 주체성 자기 문화로(이누미야, 2003; 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자신의 감정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채는 기제가 발달되어있다(최상진, 1997). 최상진(2000a)은 한국 사람들의 사회심리 기제들은 언뜻 보기엔 매우 부정적 감정의 표현으로 알려진 기제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제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그 본연에는 직접 노출하기 힘든 속내, 즉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 본 '빼침'은, 친밀한 우리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드러내어 해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소통양식 즉, 한국적 마음읽기가 반영된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빼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본 결과 '상대 관심유도(26.1%)', '심정공감받기(25.2%)', '간접적 심정표출(11.8%)', '직접적 심정표출(8.4%)', '얻는 것 없음(21.8%)'으로 나타났다. 즉 '얻는 것 없음(21.8%)'를 제외한 나머지 약 80%는 손상된 관계를 개선 및 유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빼침 해소 방법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관계 속 갈등 발생 시, 빼침을 통해 상대의 관심을 끌고 심정을 공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숙한 관계 대처양식으로 보일 수 있는 '빼침'이 한국의 일상에서 빈번한 의사소통 양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빼침'은 그 겉모습과는 달리, 가장 한국적 의사소통 양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에 비해 더욱 기능적이고, 공적 의식이 사적 의식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문화 진화론적인 논쟁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이 시점에, 한국의 긍정적 힘의 원천인 관계 중심주의가 한국적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빼침'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다. 또한 심리 내적 갈등은 개방되고 표현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도 위배됨이 없는 직·간접적 심정표출도 빼침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빼침'이 개인 내적으로는 손상된 마음을 해결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관계의 손상을 방지하게 하는 다차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빼침의 역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빼침이 일어나는 상황이 '화'와는 달리 매우 모호하고, 화에 비해 미시적 상황맥락에서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에너지는 매우 크게 소모될 수 있다. '빼침'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심리적 에너지 소모(37.8%)', '이미지 손상(33.6%)', '관계약화(24.4%)'로 나타났다. '빼침'이 긍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거나 개인 내적 손상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빼침'은 '화'보다 덜 심각한 억울함, 섭섭함, 성남을 나타낸다. '화'는 매우 격렬한 심적 변화를 겪기도 하며, 중대한 화는 쉽게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풀리지도 않는다. 감정의 흥분 폭이 매우 크며, 더 나아가서는 쇠진(exhaustion)을 경험하기도 한다(최상진, 1997). 그러나 '빼침'은 발현 상황 및 표현

양식에 있어 ‘화’에 비해 매우 일상적이며 그 강도가 경미하다. 그래서 그 증상이 ‘화’에 비해 오래가지 않는다. 이는 ‘삐침’이 ‘화’보다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삐침’은 ‘화’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리이다. 발현 양식에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상대의 대처행동에 따라 ‘삐침’의 주기는 매우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 매우 전형적이 삐침 표현양식(script)인 ‘흥!’, ‘쳇!’ 등의 감탄사 또는 침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화’와 ‘삐침’이 사용되는 맥락의 심각성과 강도(severity)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삐침’이 한국적 ‘화’의 전조적 현상으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상 언어인 ‘삐침’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었다. 일상의 심리를 떠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들을 범주화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삐침’의 현상과 구조를 도출하여 그 문화적 기능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물론 본 연구에 앞서 최상진 등(2000)에 의해 삐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최상진 등(2000)은 삐침을 ‘특정 사건으로 인해 심정상함이 일어난 동태적 마음’으로 정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삐침의 개념을 마음이 아닌 손상된 심정이 표현된 문화 특수적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 왜냐하면, 삐치는 행위에는 무수한 정서가 포함되어 있어, 발현 대상과 사건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와 드러내는 정서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을 ‘삐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상진 등(2000)이 기능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을

제시하여 삐침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삐침의 외적 현상 및 심리, 사회적 현상, 그리고 구체적 행동양식 제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삐침’은 그 발생 맥락이 정형적이지 않아, 상황에 따라 ‘삐침’이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며, 동일 상황에서도 대상에 따라 그 발현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삐침’ 현상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삐침’이라는 한국적 대인관계 속 문화 특수적 행동양식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가 약 200시간의 토의를 통해 얻은 결과이므로 그 한계를 상쇄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삐침’을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척도제작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 본, ‘삐침’ 발생 상황 네 가지는 삐침이 발생하는 원인과 맥락을 구조화한 결과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삐침 척도는 상황변인 및 개인변인을 측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삐침’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개념을 정교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삐침’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자가(또는 여자가) 더 잘 삐친다’는 사회 통념적 명제에 대한 심리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의 41.9%는 ‘기대좌절’로 인한 삐침을, 여성의 40.3%는 ‘무시당함’에 의해 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차에 따라 빠치는 맥락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발달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Ellenson(1982)은 발달에 따라 정서표현의 방법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과격한 표현은 줄어들고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즉 빠침도 한국적인 정서표현 방법이므로, 발달에 따라 빠침의 표현방식과 그 기능이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인관계 장면에서, 미숙한 갈등 대처방식으로 인식되어 온 일상심리인 '빠침'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구성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빠침'은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한국 문화 속 우리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성 관계에서 손상된 심정을 직접적이고 이성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유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빠침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적 대안관계 상황에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토착적이며 일상적 심리가 과학적 심리학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화 및 토착심리학적 시도는 한국인의 일상의 향기를 학문적으로 승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124.137.201.223/>에서 2009, 9, 23 인출.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28.
- 김정운 (2001). 관계적 정서와 문화적 정서: 정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89-407.
- 손영미, 최상진 (1999). 한국인의 심정적 대화상 황분석을 통한 심정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심영희, 한국학중앙연구원 (1981). 한국인의 새로운 윤리상 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현대 한국인 국민성의 장점과 그 활성화 방안.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오세철 (1982). 문화와 사회심리 이론: 조직행동 이론의 재구성. 서울: 박영사.
- 이규태 (2000).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한일 비교 성격론. *일본연구 제 11집*, 103-125.
-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구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04 -139.
- 조금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금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4.
- 조금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분노 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69-90.
- 조은경 (1995). 삶의 질의 심리학, 정서적 균형과

-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23-43.
- 차재호 (1988). 한국인의 성격, 국민성의 활성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상진, 최수향 (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1-9.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 최상진 (1997). 동양 심리학의 모색: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131-143.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최상진 (1999).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情) 한에 (恨)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움, 3-21.
- 최상진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2000a).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b).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5-40.
- 최상진, 손영미, 박정열, 이경언 (2000). 친밀관계에서의 '빠짐(토라짐)'의 심리적 기제, 과정, 표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사회 및 성격, 80-81.
- 최상진 (2003).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Dilthey, W. (2009). 정신과학 입문(이영철 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원전, 1962)
- Ellenson A. (1982). Human relations, N. J.: Prentice-Hall, Inc.
- Gerrig Zimbardo(2008). Psychology and Life.: Pearson Education, Inc.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70-986.
- Josephs I. E. (1994). Display rule behavior and understanding it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301-326.
- Joseph, S. Williams, R., Irwing, P., & Cammock, T. (1994).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869-87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 Wittgenstein, L. J. J. (2006). 논리 철학 논고(이영철 역). 서울: 책세상. (원전, 1921)

논문투고일 : 2009. 10. 16

1 차심사일 : 2009. 12. 16

게재확정일 : 2010. 02. 10

The Conceptual Exploration of Korean ‘Pbi-chim’

Kyoung-jae Song

Yoon-young Kim

Yul-woo Park

Sung-mi Park

Ji-young Shin

Sung-yul Han

Korea University

In Korea, *Pbichim* refers to a psychological state caused by emotional damages that can occur within close relationships. In this state, one might feel reluctant to express one's feelings directly to the other party. It is also possible that *Pbichim* transforms into anger. This study is aimed to define the term *Pbichim* a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concept. In Korea, it is common to express one's feelings indirectly and read the other party's inward thoughts. *Pbichim* reflects those cultural aspects. In order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of *Pbichim* in Korea,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5 open-ended questions. The participants were 119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t Korea University, and the data was analyzed qualitatively. As a result, four different aspects of *Pbichim* (unsatisfied expectation, being ignored, being alienated, and power struggle) c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likely to present *Pbichim*. The personality traits of *Pbichim*, the way of relieving it, as well as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Pbichim* were also elici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bichim* (the concept that has been negatively perceived) has an important function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Korea. Lastly, the importance of mind reading within a certain cultural context is discussed.

Key words : *pbichim*, *indigenous psycholog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imcheong*, *vernacular*